



미 증시, 테슬라 급등, 휴전 기대감 확대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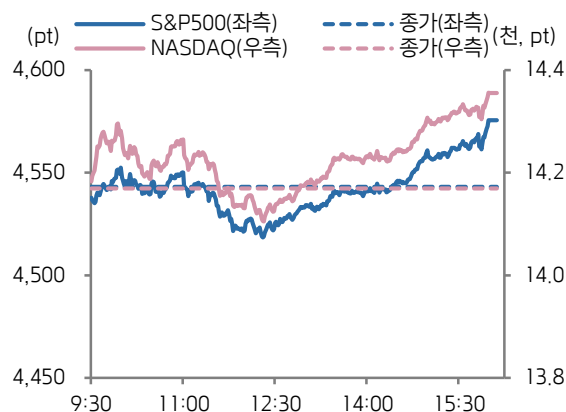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28 일 (월) 미국 증시는 테슬라 급등 효과, 휴전 기대감 확대 등에 상승 마감. 테슬라(+8.0%)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에 급등했고, 우크라이나-러시아간 휴전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NATO 를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EU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함. S&P500 지수는 장 초반 중국 상해 락다운, 애플 아이폰 생산량 축소, 바이든 행정부의 부유세소식에 부담을 받으며 0.1% 하락 출발. 바이든의 부유세는 상위 0.01%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인상을 제시. 오전 여러 악재발 매물 소화하며 상승과 하락 전환을 반복하다, 오후 휴전 진전 소식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0.7% 상승 마감(다우 +0.27%, S&P500 +0.71%, 나스닥 +1.31%, 러셀 2000 0%).

업종별로 경기소비재(+2.7%), 부동산(+1.3%), IT(+1.2%)가 강세, 에너지(-2.6%), 소재(-0.5%), 금융(-0.3%)이 약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 장세를 보임. 이날 국제유가는 6%대로 급락하면서 에너지(-2.6%) 업종의 하락 견인, 금융 섹터도 금리 하락(미 10 년물 금리 -2bp, 2.48%)에 약세 흐름을 보임. 29 일 (화)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2.3%) 등 강세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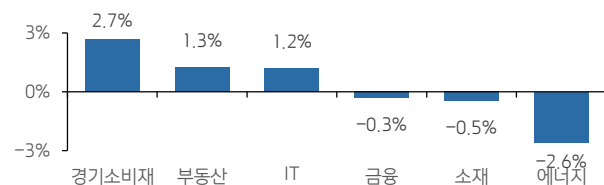
종목별로 애플(+0.5%)은 아이폰 생산량 축소 소식에도 불고하고 소폭 상승. 카니발(+5.5%), 아메리칸 에어라인(+1.7%) 등 여행주들은 상승. 게임스탑(+24.8%)과 AMC(+44.9%) 등 밈스탁들은 급등. 이날 AMC 는 CEO 의 향후 M&A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에 급등. 코인베이스(+7.8%)는 브라질 암호화폐 브로커리지사 메르카도 비트코인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급등, 비온드미트(+1.1%)는 오전 파이프 샌들러의 투자 의견 하향조정 여파에 약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 상승 전환하며 마감.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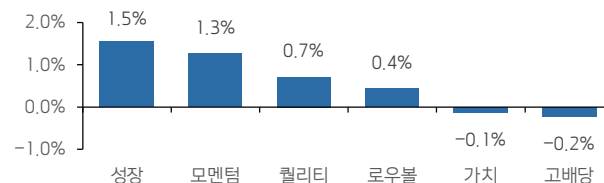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575.52	+0.71%	USD/KRW	1,227.44	+0.7%
NASDAQ	14,354.90	+1.31%	달러 지수	99.14	+0.36%
다우	34,955.89	+0.27%	EUR/USD	1.10	+0%
VIX	19.63	-5.67%	USD/CNH	6.39	-0.01%
러셀 2000	2,078.06	+0%	USD/JPY	123.87	+0.01%
필라. 반도체	3,547.17	+0.62%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482.79	+0.59%	국고채 3년	2.777	+26.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040	+16.3bp
Eurostoxx50	3,887.10	+0.5%	미국 국채 2년	2.328	+5.8bp
MSCI 전세계 지수	709.58	+0.11%	미국 국채 10년	2.459	-1.5bp
MSCI DM 지수	3,049.11	+0.25%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125.01	-1.05%	WTI	105.96	-6.97%
MSCI 한국 ETF	70.88	+1.01%	금	1944.7	-0.7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1%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3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2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테슬라(+8.0%) 등 미국 성장주들의 강세가 국내 성장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2. 엔화 약세가 국내 수출 기업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
3. 위험선호심리 개선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전환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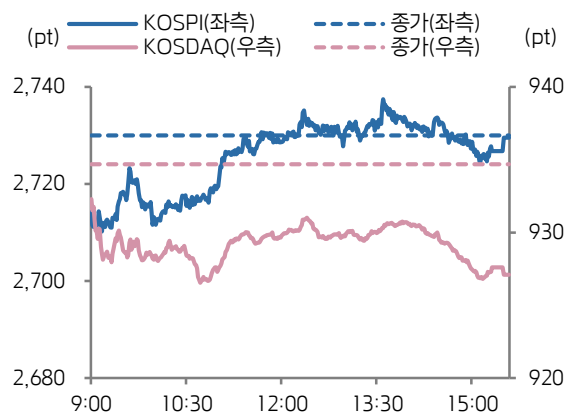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단기 금리인 10 년물과 2 년물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30 년물과 5 년물 금리차가 2006 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됐다는 점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모습. 특정 회의에서 50bp 인상을 열어놓은 연준(단기, 중기물 금리),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공급난 등에서 기인한 미래 성장 둔화 우려(장기금리)가 장단기금리차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그러나 28 일 미국 증시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장에서는 상기 재료들을 일정부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것처럼, 침체의 예측력이 더 높은 10 년물과 3 개월물 금리차는 확대 국면에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 30 년물과 5 년물에 이어, 10 년물과 2 년물, 10 년물과 3 개월 물이 순차적으로 축소될 시에는 침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시점에서는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 인플레이션 발 침체 우려를 키웠던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 29 일 예정된 5 차 협상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및 나토 가입 포기, 러시아의 탈나치화 요구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점도 안도 요인이 될 전망.

금일 국내 증시도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 속 선진국 증시 강세에 따른 위험선호심리 개선 등으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바이든 정부의 2023 회계년도 예산안 중 부유층에 대한 미실현 이익 증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세금 부과 추진 소식에도 빅테크 성장주들이 견조한 주가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국내 증시에서 성장, IT 관련주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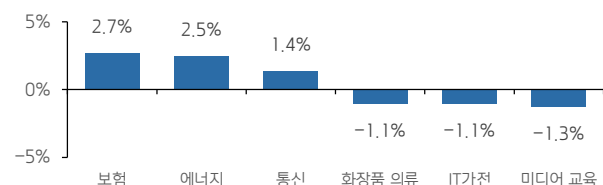
한편, 최근 달러/엔 환율이 123 엔대를 돌파하는 엔저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가전, 철강 등 주요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실제로 일본 기업들이 수출 단가의 신속한 인하에 나선다면 한국 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불리해 질 가능성 존재. 현재의 엔화 약세에는 오버슈팅 성격이 존재하며 엔화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 입장에서 쉽게 수출 단가 인하에 나서기 어려울 전망. 또 과거 2013~15 년 당시 엔화 초 약세가 전개 됐을 때에도, 코스피 주가와 영업이익과의 관련성은 높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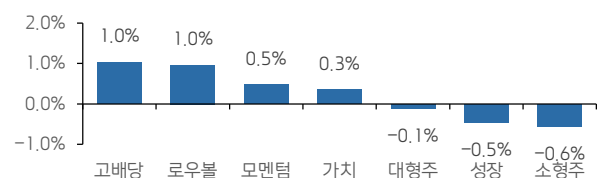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